"소리로 만나고, 세대로 잇는 전통예술공연 펼칠 것"

황승옥(씨한국전통예술산조진흥원 이사장

"올해는 특별히 첫 순서로 '액맥이 타령'을 올립니다. 요즘 기후위기 재앙이 너무 심하 잖아요.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도 나고요. 우리 음악으로 이런 액을 조금이라도 막아 보자는 마음에서 기획했어요."

오는 9월6일 오후 6시 광주 전통문화관에서 열 리는 '2025 빛고을 대풍류 - 천년의 유산, 예술의 本' 공연을 앞두고, 황승옥 (사)한국전통예술산조 진흥원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공연을 기획, 연출한 황 이사장은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가야금병창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 라며 "전통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또 변질되지 않게 지켜내는 균형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황이사장은 "지난해 공연에선 1.5도 지구의 위 기'를 주제로 한 판소리와 25현 가야금 연주를 선 보였다"며 "그때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간의 각성 과 회복을 이야기했다면, 올해는 모든 재앙과 고 통을 덜어주는 기원, 다시 말해 액을 막는 '액맥 이'로 문을 열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에는 취선의 금의소리 연주단의 가야 금병창 '액맥이 타령'을 비롯해 김죽파류 산조, 진 도북춤, 국악가요 '쑥대머리', 남도민요 '동백타 령'등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 무형문화재 김선이 명창, 국가무형문화재 고수 박시양 등 전통예술 거장들과 차세대 국악 인들이 한 무대에 올라 전통의 울림을 빚어낸다.

'빛고을 대풍류'는 황 이사장이 국가무형문화 재로 지정된 이후 시작해 10년을 향해가고 있다. 황 이사장은 전통예술 보존뿐 아니라 시대적 이 슈를 예술로 풀어내고 문화재 보유자와 이수자,

내달 '2025 빛고을 대풍류' 준비 만전 가야금병창 '액맥이 타령' 등 무대 선사

후학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공연을 기획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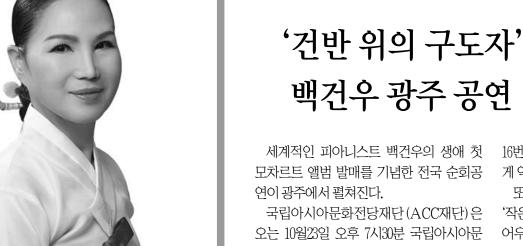
황 이사장은 특히 "이번 무대는 원로 선생님들의 품격 있는 무대와 어린이병창단의 싱그러운 에너 지가 공존하는 흔치 않은 자리"라며 "특히 어린 국 악 꿈나무들이 어떤 무대를 꾸미는지 눈여겨봐 달 라"고당부했다.

이번 공연 역시 황 이사장이 걸어온 예술 인생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그는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교육대학 원과 전남대 국악학 박사과정을 거쳤으며 국악 실기 와 이론을 아우른 대표적 예인으로 꼽힌다. 수궁가 흥보가는 조통달 명창에게, 병창은 박귀희·안숙선 명창에게, 춘향기는 방성춘 명창에게 사사하며, 가야금병창의 정통성을 고스란히 이어왔다. 19 93년 미국무성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이탈리아, 중국 등세계 곳곳에서 공연하며 전통음악의 국제성도 함께 실현해왔다. 끝으로 황이사장은 "이번 무대를 통

해 전통 안에서 변화하는 게 좋다는 걸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다"며 "우 리전통이더아름답게 '지금'과만 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씨한국전통예술산 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후 /최명진 기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생애 첫 모차르트 앨범 발매를 기념한 전국 순회공

10월23일 'ACC 슈퍼클래식' …오늘부터 예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0월23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 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2025 ACC 슈퍼 클래식'두 번째 무대로 '백건우와 모차르 트' 공연을 개최한다.

올해로 피아니스트 데뷔 69주년을 맞은 백 건우는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수차례 수 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활약해 온 대표적인 거장이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매일 피아노 연습과 연구를 지속하며 새로운 음악에 도 전하는 그는 '건반 위의 구도자'로 불린다.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이번 공연에서 모차 르트의 대표적인 피아노 소나타 10번, 12번,

16번을 비롯해 '론도'와 '환상곡'처럼 대중에 게 익숙한 곡들을 선보인다.

또 '글라스 하모니카를 위한 아다지오', '작은 장례 행진곡' 등 숨겨진 명곡들이 한데 어우러진 풍성한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모차르트의 전 생애를 아우르며 그의 음 악과 인생을 깊이 살피고 연구하는 백건우 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69년 음악 인생을 투영한 '모차르트 탐험의 완결판'을 무대 위 에 풀어낼 예정이다.

관객들은 단조와 장조의 교차를 통해 기 쁨 속의 슬픔, 맑고 순수한 화음 속에 담긴 아릿한 정서와 모차르트 특유의 감성 세계 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 관람권은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이며 7일 오전 10시부터 재단 누리집에 서구매할수있다. /최명진 기자

14일까지 유아·초등생 대상 체험 활동 조진흥원이 주관하며, 광주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14일까지 유아·초 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초록별탐험대 ▲ 우리끼리 수학탐험대 ▲인공지능 코딩교육 ▲전시물 탐구 챌린지 등 총 7종 26개 반으

로구성됐다. '초록별탐험대'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 상으로 건강과 자연생태를 탐구하며 ESG 개념을 이해하고, 환경 보호와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유도하는 신규 교육이다. 정기 교육 '바이오 랩'에서 인기를 끌었던 주제를 바탕으로 '오늘은 내가 약사(영양제 만들 기)', '뽀득뽀득 과학마법시간(비누 만들

기존의 가족 참여형 놀이수학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우리끼리 수학탐험대'는 초등학 교 1-4학년 학생 대상이다. 보드게임 등을 활 용해 수와 연산, 도형, 확률 등의 수학 개념

기)', '우리나라 야생동물(생태탐구 및 도감

읽기)'등다양한 체험활동이마련됐다.



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놀면서 배우는' 광주과학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인공지능 코딩교육'은 초등학교 4-6학년 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집중 운영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시험 AICE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시 AICE F uture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전시물 탐구 챌린지'는 초등학교 4-6학년 을 대상으로 과학관 전시물을 깊이 있게 탐 구하고, 과학 원리를 분석한 뒤 체험 보고서 를 작성하는 1일 프로그램이다. 저학년은 보 로노이 빛상자·만화경·빛 분수 만들기, 고 학년은 빔프로젝트·각도조절 투석기·공중 부양 자기부상열차 만들기 등을 체험한다.

/최명진 기자

감정·위로·식물의 서사···아트광주 25 '라이징 스타전' 3인 선정

정송희·손지원·권예솔 참여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아트 페어 '아트광주25' 특별전 '라이징 스타전'에 참여할 지역 청년작가 3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라이징 스타전'은 지역 유망 청년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을 돕고 장기적으로 지역 미술시 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전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22명의 작가가 지원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정송희, 손지원, 권예솔 작가가 선정됐다. 회화작가 정송희는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학



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광주예술의전당 갤러 리, 별밤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이어왔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중심으로 한 내면 풍경을 영화 처럼 연출된 이미지로 표현하며, 감정이 존재 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손지원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신 진작가로, 웨스턴조선 부산, 관선재갤러리, 큐 브미술관, 주안미술관 등지에서 활발한 전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우리는 자연 앞에 작은 먼지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은유적 내면 풍경 속에 부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현한다.

권예솔 작가는 전남대에서 학·석사를 수료 하고, 신세계갤러리, 금호갤러리 등에서 주목 받아왔다. 그는 식물을 주요 오브제로 삼아 실 내 공간을 정서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 어오고 있다.

한편 '아트광주25'는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최명진기자



+